

• 타운뉴스칼럼

## 장로님의 변신

인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가든그로브에 있는 어느 빵집 앞을 지나다가 C장로님 생각이 났다. 지난해 그 근처로 사무실을 이전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찾아가 보지 못했다. 인사차 방문하기로 했다. 언제나 C장로님 사무실에 갈 때는 그 빵집에서 빵을 사 갖고 갔었다. 빵집 문이 닫혀 있었다. 월요일은 영업을 안 한다는 팻말이 보였다. 할 수 없이 빈손으로 가기로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멧쟁이 C장로님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조끼까지 입고 있었다. 손을 대면 베일 것 같이 주름을 세운 바지를 입고 악어가죽 무늬 구두를 신고 있었다. 술 많은 머리카락은 반백이기는 하지만 올백으로 반듯하게 빗겨져 있었다. 반갑게 맞이 해주었다. 약간 기운이 없어 보였으나 70대 중반의 연세를 생각하면 크게 이상할 것도 없었다.

사무실을 둘러보니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다. 그의 테이블에 곱게 차려 입은 여인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물었다가 예상하지 못한 답이 나올 수도 있어 조심하기로 했다.

만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당신의 생각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국 정치, 미국 정치에 이어 경제로 화제가 이어지면서 가속도가 붙은 기관차처럼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이야기는 종교로 귀결된다. 신의 뜻과 그분의 의지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라는 논리다. 얘기하는 동안 달라진 것들이 또 눈에 띄었다. 손짓을 할 때마다 그의 팔목에서 금장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다. 꽤 비싸 보이는 시계인데 그가 예전에 찾던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워 보이던 시계와는 전혀 다른 유형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의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다. 반지가 헐거운지 반지 둘레에 흰 테이프를 붙인 것이 어울려 보이지 않았지만 값나가는 보석 반지임에는 틀림없었다.

왜?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사람들은 가끔 달라고 싶을 때가 있다. 살다보면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도 있지 않은가. 종횡무진 이야기 열차는 달린다. 갑자기 속력을 줄이면서 방향을 틀려는 듯 그가 내게 물었다. 우리 집사람 본 적이 있어요? 예, 몇 해 전에 사무실에 들렀을 때 사모님이 맞아 주셨지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내가 지난해 12월에 세상을 떠났어요.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주춤하는데 장로님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내가 아내와 만났을 때 내내는 학생이었고, 나는 교리 교사였지요. 두 분의 연애사가 시작되었다. 아름다운 그들의 봄, 연애의 끝은 결혼 아닌가. 애기 듣다가 잠시 자동차로 갔다. 봉투를 찾아 근조라 쓰고 조의금 봉투로 만들었다. 그리고 봉투를 건넸다.

다시 이야기는 이어졌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보석함을 열어보니 아끼느라고 차지 않고 장롱 깊숙이 보관해 왔던 각종 보석들이 반짝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반지 등, 여러 개의 반지들, 그밖에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등.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인가요. 죽으면 그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소중히 모셔두었던 시계를 차기로 했지요. 반지도 그렇고요. 살이 빠져서 반지는 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안쪽에 두르고 끼고 다니는 겁니다. 다 소용없어요. 소중한 물건이라고 절대로 아낄 필요 없어요.

이제 상황 파악이 끝났다. 그의 변화는 아내와의 이별을 통한 깨달음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부인과 사별하며 일어난 변화이지만, 나이든 분이 사별 후 움츠러거나 외모가 추레하게 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단장함으로써 도리어 나이든 남자의 기품이 돋보여서 좋았다.

나를 뒤 가든그로브 갈 일이 있어 그 빵집에 가서 빵을 샀다. 팔빵 4개와 곰보빵 4개, 장로님이 좋아하는 빵이다. 예전에는 같은 돈에 10개였는데 이제는 두 개가 줄었다.

장로님은 그날 입었던 옷과 전혀 다른 컬러의 와이셔츠, 넥타이, 양복, 그리고 구두까지 갖춰 입고 맞아 주었다. 빵을 무엇하러 사왔냐면서도 고마워했다. 그의 이야기 열차가 또 출발을 위해 워밍업을 하는데 전화가 왔다. 급히 가야할 곳이 생겼다. 좀 더 그와 시간을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나 서둘러 나와야 했다. 작별인사를 하고 나와 자동차를 타려는데 장로님이 따라 나왔다. 빵 8개가 든 봉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말했다. 빵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chahn@townnewsusa.com

타운뉴스



## 제 1367호 목차

타운뉴스 칼럼	11
커뮤니티 소식	13,15
IT·과학	16,33
법률	19
여행	21
나는야 1.5세 아줌마	23
전문인 칼럼	25,36
숨은그림 찾기,답/날말 퀴즈,답	26,46/26,45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27
업소탐방	32
깔깔	34
부동산/경제	37
세상에 이런 일이	39
한인업소 안내지도	40,42,52,54,56
그림여행	43
연예	45,47
종교	46
중고차, 안내광고	48,49
Domestic/ 주간운세	50
여성	53,57

## 기주장익시

매장·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대표: 정영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TEL (562)622-9393

## 타운뉴스® 배포지역

- 로스엔젤레스, 세리토스, 아테시아
- 하시엔다, 로렌하이츠, 다이아몬드 바 등 LA 동부
- 오렌지카운티 전지역
- 가디나, 토랜스

광고문의 562.404.0027  
info@townnewsusa.com

www.townnewsusa.com

###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36년 임상경험의 치아식 전문의 및 5명의 각 치과 전문의와 함께 모든 치과진료를 한곳에서 받을수 있는 종합치과

Our clinic is DISINFECTED and SAFE to VISIT

#### 일반·미용치과 전문

Hara Jeon, DDS, MS, Ph.D  
Jeong Eun Kim, DDS  
Soyoun Jenny Min, DDS  
Maria Capiral, DDS

- 3차원 CT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
-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무출혈·무통 잇몸치료

#### New Address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949.679.6000 / (San Diego) 760.479.9876  
www.timkimdental.com

#### 교정치과 전문

Jin Kim, DDS,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 임플란트/구강외과 전문

Timothy Kim, DDS, MS, Ph.D  
Medicare B plan (PPO) provider  
Health care(PPO) 취급하여  
→ 뼈이식과 Implant 할인 혜택 가능



## 터스틴 김건중 종합치과

NEW LOCATION TO BETTER SERVE YOUR DENTAL NEED

KEON-JUNG 'TIMOTHY' KIM  
구강외과/치아식 수술전문 ORAL SURGERY  
D.D.S., M.S.D., Ph.D.

- 대한 구강악안면 외과 board certified specialist
- 인천 중앙 길병원 치과 구강외과 주임과장 역임
- 대한 구강악안면 상형재건외과학회 지도의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Postgraduate Fellow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역임
- New Orleans Charity Hospital 구강외과, 치아식과 임상과장
- 미 치아식학회 (AAID, AO)회원
- ADA, CDA, OODS, KADA 회원